



少数民族의生活改善에도

西成教会 金元治

금번	사정하에서	우리판
서에서는	교포사회에	봉사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공
부를 하였다	우리는	지금
까지 개인전도	심방전도전	도집회등을 통하여서
교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왔다
그러나	그러한	소위 교
회당 중심적인	전도에서 한	것을
밖에나가는	전도에는	없어야 할것을
느끼지게되	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되지 않았다	고 할수없으나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아	니하였던것만은	사실이다 사
회에 대한	관심은	우리선
배들이	국가의	독립을 위

전국	노력을	한것을	보아
도 알수가	있으며	조국의	현대문명에
리민들의	선배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	포 사회를	위하여서
하는것이	역시	우리교회의	사명중의 하나인
것은	제일로	외지에서	정신적 고민을
당하는	동포를	정신전 안정을	가지
할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만이	이루워지는	일이다
이일은	전도의	효과를	생각하는것
보담도	교포 한사람	이라	소년 부랑화의
보도문제등			

는것을	먼저	생각하면	전
도 하는	일이되겠다	다음	에는
교포단체에서	같이일	할것이다	이것은
현재하는	본도 있으나	그저	개인의
자격과	재능에	따라서	하
고 있으나	그러한	분에게	도
교회로	그라리에	파송	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	고
봉사 할수있도록	교회	나 또	그일하는
개인도 자	각을	가지는	것이
교포사 회에	봉사하는	뜻에	맞을
것이다	다음에	교회	는
취직과	학교입학문제	또는청	소년
부랑화의	보도문제등		

在日僑胞善導에最善을

근자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성결교회의 모(某)목사는 재일교포 특히 二世들의 사상계몽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위험하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들은 민족의식이 희박한 동시에 공산주의선전에 휩쓸릴 염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사회인뿐만 아니라 교회안에서 자라는二世들 에게서 찾아볼수있고 더구나 일본교회지도자들을의 사상바탕이 공산주의에 동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지도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재일교포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위험지구에서 살고 있다고 볼수있다 재일교포들의 생활은 정상적인 국교수립이 되어있지 못한 오늘에 있어서 항상 불안정한 가운데있다 이러한 들을 타고 공산주의의교묘한 선전은 치렬하고 끈기지지마는 모국에 있는 교회는 이에대한 견고한 사상이자들이 주로 소국을 방문한다 그들의귀국소감은 모두가 실망하는 말뿐이다 외면적으로 고초를 겪물이 우물우물 찾아있는 것이 옛날보다 다르다

이 있다. 우선 일본 사회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보증을 누가 하겠느냐. 그것은 도장적인 보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 그 민족의 보증자가 될 수 리 교회와 재일 교포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교포 사회에서 양심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데는 또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회가 일본인 사회에 대하여서 신용 있게 할 자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일을 위하여서 모든 면에서 힘을 해야 하겠다.	교포 사회에 필요한 교회 그런대 우리 교포들이 참 우리 교회를 자기의 안 정소로 알게 되어오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들어오지 아니한 이에 개척 임이 있다고 볼런지 모르지마는 실제로는 들어오지도 하지 못한 우리에게 더
과 사랑의 봉사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적어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곳 도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는 전매국이다. 이것이 어찌 사회에서는 물라주가 한탄하기까지 감감함때도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진정이지 믿지 아니하는 교포들은 우리의 태만과 비능률적이다. 또 복음 이해의 어려움을 한탄 할 것이다. 우리들이면 저 생각할 것은 복음이 아직 우리 교포 사회에 도착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 다. 아직도 예수교는 외국 종교라고 생각 하는 사람 이 많다. 관혼 상제는 의례로 다른 종교 의식에 따지 그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의식이 결이 들어가면 자연히 복음 이 개인의 생활에 까지 관 계를 맺게된다. 우리 교포 사회에 교회가 없어서 아 니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 는 교포들에게도 절실이는	개게될 때에 교회는 교포 사회에 까지도 깊이 뿌리 를 박은 중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포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관혼 상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초하신 인류는 의례로 하나님을 믿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는 믿는 자이니까 하는 생각이 먼저선다. 이것은 아직 도 우리 믿는 자의 생활 에도 복음이 그 생활에까지 길이 들어가지 아니한 증 거다. 우리 교포 사회에 깊이 매물은 즉 누구에게든 제든지 봉사를 아끼지 말 코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들의 심령의 구원을 제 일로 함과 동시에 교 포 사회의 양식개량에 까지 도 우리는 적극적인 활 동을 해야 하겠다. 하여튼 교 포 사회의 필요에 응답 하 여주는 교회가 되자

聖經을 어떻게 읽을까

이다 이것은 우리의 활동
 람들의 멋진 옷차림도 호
 활하지마는 재일교포에 대한
 무관심에 크게 실망을 느낀
 다고 말한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은 뜨겁게
 습 아픔을 느낀다
 왜 우리의 동포애가 식
 어졌는가? 초대교회의 기록
 을 더듬어보면 一九一〇년
 대에 장·감 양교파가 연
 합하여 일본에 유학하는 학
 생들과 교포전도를 위하여
 한석진 목사화 그밖의 여러
 러전도자를 보냈다는 기록
 이 있다 일본 뿐만이 아니
 었다 남으로 중국 상해와
 남경 북으로 쓰련 연해주
 에까지 교포들이 사는 곳마
 다 전도자 들을 자주 보냈
 고 계속해 보냈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매
 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성
 경을 바르게 읽지 아니하
 면 안된다 역사적으로 말
 해도 성경이 바르게 읽히
 우고 성경이 신앙이 바르
 게 읽히우고 성경의 신앙
 이 바르게 파악되어 있던
 시대에는 교회의 신학이나
 생활이 모두 건전하였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떠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제도에 기
 울어선다든지 인간의 이익
 위에 서고자 할 때에 신
 앙은 반드시 위험하게 되
 었었다 문화가 고도로 발
 전되고 모든 안일정서를 찾
 은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예술국가도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의 진리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참다운 사
 회 착한 국가를 건설한다
 고 한다 또한 바르게 읽
 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매일 반드시 읽자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
 니된다 생명의 양식 이다
 부식물이 아니라 주식물이
 다 그러므로 이것을 섭취
 하지 아니하면 영양이 실
 족될수 밖에 없다 교우들
 중에 성경을 찬반위에 놓
 아두거나 책가위 안에
 어두는 사람이 있지 않는
 가? 주일 예배 보고
 서 다음 주일까지 책보에
 싹대로 두는 사람은 없는
 가? 성경은 주일날만의 책
 이 아니고 예배당에 있어
 서만의 책이 아니다 우리에
 게 오늘 하루를 위하여 없
 어서는 아니될 책이다 매

일	만드	읽는	것이	중요	서	하는	태도로	성경에	일
하다	매일	성경	읽기	표에	◎	기도와	성靈		
의해	나 한	두장	의 일과		성경을	기록한	자는	성	
표를	정하는	지 하여	통독		영 자신	이시다	성령이	기	
하면	좋다	읽고	싶지	않아	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	
도	영의	양식	이니	매일	리의	생태의	지혜나	경험	
어	한	다			을	가지고	서는	이해	할수
◎	문제를	가지고	읽자		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	
제	삼자	로서	방관자	로서	영의	도움을	기도하고	읽	
구경	군으로	성경	을	읽는	기	시작	할것이요	또한	읽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	은	다음에도	기도할	것이다	
록된	귀절과	사건	이 모두	기	도와	성령과의	관계는	순	
자	기의	문제로	서 읽지	아니	화적	이나	기도하고	읽고	또
하면	안된다	등잔	밑에	조	기도	하자			
용히	않아	성경	속에	잠	교회	란	성령이	증거	하는
진	진리를	찾으며	인생	을	하나	님의	말씀을	믿고	고
알고	인생을	생각	하며	만	빠	하는	무리	이다	교회는
쓰	을	통하여	내마음	에	음	위에	세워	진	말씀의
타	내시	려는	하나	님의	회	요	그	머리는	성령
가	그	두엇	임을	발견	해	봄	이	예수	그리스
어	면가	야	꿈이	얍	북	장	변		
에서	나	내게	축	복	하	지	아		
니	하면	가	게	하지	아	니	하		
겠	나	이다	나	하	님	의	사		
람	과	써	들	한	것	처럼	하		
나	님의	말	씀	에	심	각	하	게	부
디	쳐	서	하나	님의	말	씀	을	받	
기	까	지	더	들	어	살	게	되	는
영	의	가	있	어	야	할	것	이	다

국회의원
후

아서는 안된다. 성경과 나의 판계는 내가 성경의 비판자가 되어 나의 전존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성경을 읽는 다기 보다 내가 성경에 합치고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저 점순하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 들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저난 十一월二十六일에 심시된 제三공화국 六대국회 의원 선거에서 크리스찬으로 당선된의원 민주공화당당원 百十명중 三名 민정당四一명중 四명 민주당 十三명중 二명(자민당九명 국민당二명중에는없음) 이 당선되었다. 크리스찬 임후부 五十명이었다.

論壇 青年と信仰

西宮教会牧師 尹 宗 銀

聖書は「心の清い人たちは幸いである」といつているが正に青年とは心の清さをもつ人であると言えよ。私がこゝでいつている青年とは、生物現象的な又は世代的に十七、八才から三十才頃までの年齢層に属するもののみを言っているのではなく、青壯者を問わねばならぬ。青年とは青年だけがもちうるものであるから否信仰をもつものは総て青年でなければならぬからである。それは信仰の性格から考へられる。パウロは「たとえ私たちの外なる人は滅びても、内なる人は日ごとに新しくされていく」といつているようにキリストにあるものは、即ち信仰にその生をもつものは青年でなければならぬ。

「青年」という名称をたんに観念的に解するよりも、青年の特徵としての純粋性をもつてしかもこの世に生きるという希望を抱いておれば、それが青年そのものであると定義したい。今日私たちの教会では「青年とは一定の制限の下で考へているようである」といつている。又青年という名の故にプライドをもっているそれは結構なことだと思ふが考えねばならないことは、名だけの青年では青年と呼ぶにふさわしくないものである。問題は本當の意味で青年でな

くは自己の使命に生きることである。教会青年はその使命に自覚しているだろうか。(2)次に考えたのは「信仰をもつ青年である。現代の多くの文藝者たちは、現代を希望なき時代、あるいは調和が破れた時代とよんでいる。確かにその通りである。今日のよきな文明文化は部分的には極度に進歩しているが、全体的には全くアンバランスになっている。その結果人間関係は危険にさらされ、全く人間をやめてアトム化した人となつてしまつたのである。ここに今日の多くの青年は悩み苦しむ、又孤独のあまり自分の穴に閉じこんでしまつたのである。なんと恐ろしいことであらうか。このようにアトム化され

ればならない。では本當の青年とは如何なるものであらうか。それは先にも述べたようにある一定の制限された年齢に参加できる時だけ青年で、その制限された年齢から外れしまつたと判断する処に、私たちの信仰の問題が残っている。

私たちは信仰を云々する場合、必ずその信仰につきまとうのは青年性である。では青年性とは如何なるものであるのか。それは希望に生きることを要する。希望に生きることである。希望に生きること

は、本當に信仰を持ちつづけることが可能であらうか。もちろん信仰とは神と自分の垂直的な関係であつて、水平的な横的な関係でないから自分一人で充分だといふやう。しかし信仰は人格的な事柄であつて、目に見えないある方に祈つておるだけでは成立しないのである。聖書は「神を愛していると言ひながら兄弟を憎む者は偽り者である。現に見ている兄弟を愛さない者は、目に見えない神を愛すること出来ない」と言ひつづけている。以上のように考えれば、信仰とは愛と関係をもち、愛は交りと関係をもつことがよくわかる。ここに私たちの信仰をもつことは神と交わりをもつと同時に人と交わりをもつ

ことだと考えられる。従つて信仰をもつ青年とは愛に生きる青年であり交わりをもつ青年だといえる。ここで私たちはこの世における教会の使命を知るべきである。私たちの使命がなんであるかを理解しうるのである。つまり信仰をもつ青年のこの世に対する使命は、和らぎと交わりを

伝えることである。即ちキリストの福音を世に伝えることは、我々基督教者青年にとつて最大の使命でなければならぬ。かゝる意味でもって、私たちは永久に青年でなければならぬと同時に使命を全うする信仰者でなければならぬのである。

二人が家の玄関で出会つたその瞬間からサリバン先生の教育が始まる。それは、教養と知識とを、引出すとかいふ上品なものではない。むしろ、全く戦争です。なぐりあひです。格闘です。そのすさまじさは見て息がつまりそうです。

二週間、それがやつとサリバン先生とヘレンとの二人だけの生活のため、与えられた時間です。先生も死にものぐるいで教育します。ヘレンは、そこで食事を、着衣と基本的な事を身につけます。しかし、それは賞罰、よつて押付けられた条件反射、すぎません。苦痛だけで、喜びがありません。内之には限度があります。内側からのものがなければ、それ以上すすみません。いや、ヘレンの人間がしほんで死んでしまひます。このかべにぶつかり、自信を失つてサリバン先生のは悩みます。

二週間を終つて家に帰つたヘレンは、憎い先生に水さしの水をあげます。先生はこの時、「水！水！」と教えます。ヘレンはこの時はじめてものに名があることとります。憎まれても、それで愛を行ふ機会とする愛。憎まれながら愛しつづける愛。この映画は、そんな愛を教えます。私はこの映画を見終つて、この愛のきびしさに日本人はいつてゆけるかどうか。この映画がうけるかどうかで日本人をテストすることが出来るので、はなからうかと思ひました。

人種差別・偏見がない

ハイデルベルグ大学 金 君 植

ハイデルベルグ大学の神学部はドイツ中最も充実しております。学生は約八百人おります。金君は約一万人おります。ハイデルベルグに来たてでも下宿難の為に来れない学生が相当あるようです。私はGボンカムハイムリッヒ・ボルンカル、Gフォン・ラー、クーン、ウエスターマン教授の講義を聞いております。四分一もわかればいい方でしう。とにかくドイツ語のむづかしいのは閉口しております。ノイローゼにかゝる寸前、ある学生から講義がやつと理解できるのははやくとも三年以上はかゝると聞いてはつとしました。それからあせらずのん気にかまえるようになった次第です。お隣のフランス人でさえ英語より数倍も

の努力をドイツ語についてやさねばならぬとこぼしております。言語構造の全く異なる我々東洋人にお話しになります。早すぎます。まだ言葉も充分

理解できないのに、自分の想像でドイツを批判する勇氣はありません。日本でドイツについて聞いたり読んだものが全々でためであつたりするものがあります。ドイツ人の相棒と生活してみても感じる事はこれドイツ人一般に言える事です。それは非常に節約する事です。生活に無駄がない事です。これはお金をはじめ、あらゆる事にあらはれます。日本では食費三日する

と一生やめられまいと云う話があります。ドイツでは食費はつとまらないでしう。(でも食費する必要もない程仕事があります。道路には紙くずは落ちていないし、ごみ箱にでてるものといへばそれこそ灰ぐらひでしう。今ドイツは経済的に繁栄もし安定しております。ドイツ人の生活もゆとりがあり豊かですが、でもちつともぜいたくするところがありません。彼らはどんなに現在が豊かであらうと、戦後の苦しみをおぼれないうやうです。ドイツはおしやべりと散歩が唯一の楽しみでしう。ビールをの

こ映画は生後六カ月の時、急性熱病で、一時にめくらとつんぽとおしになつて、其後七年、施すすべもなく、自由気ままに放任されて、まつたく、野獣のようになつていた子、ヘレン・ケラーの教育にかかつて二週間に、どんな

ものにも、それぞれ固有の名があることとさせることによつて、人間としての心の目を開く「奇蹟を行つた人」サリバン先生が主人公であり、主題です。

映画はヘレンの家庭と、そこへ盲学校から教師として黒メアメリカと違い人種差別とか偏見がないのです。人々者は黒人です。ドイツの女子学生は彼らと結婚するもの大ぜいおります。

映画の題名ではありませんが、末は大臣が博士になるものばかりです。このハイデルベルクには韓国の留学生が約二十名ばかりおります。三、四年たった人が殆んどです。最初は奨学金をもらつたのですが今アルバイトしながらやつてい

るものもおります。皆優秀な人達ばかりです。

私は日本から最初の同僚留学生としてちん重されております。どうも外国人のようになつてゐるやうで変な感じがします。韓国語を話すと最初みなびっくりしたやうです。

外国に来ますと言ひに言えぬ孤独を感じますがでも世界的に有名な教授の講義が聞けるのが唯一の楽しみでしう。私は真前であつております。

美しいハイデルベルクの町で勉強できるのが感謝です。日本はある韓国教会の皆様によりしく

敬具

奇蹟人の(映画)鑑賞

この映画は生後六カ月の時、急性熱病で、一時にめくらとつんぽとおしになつて、其後七年、施すすべもなく、自由気ままに放任されて、まつたく、野獣のようになつていた子、ヘレン・ケラーの教育にかかつて二週間に、どんな

ものにも、それぞれ固有の名があることとさせることによつて、人間としての心の目を開く「奇蹟を行つた人」サリバン先生が主人公であり、主題です。

映画はヘレンの家庭と、そこへ盲学校から教師として黒メアメリカと違い人種差別とか偏見がないのです。人々者は黒人です。ドイツの女子学生は彼らと結婚するもの大ぜいおります。

映画の題名ではありませんが、末は大臣が博士になるものばかりです。このハイデルベルクには韓国の留学生が約二十名ばかりおります。三、四年たった人が殆んどです。最初は奨学金をもらつたのですが今アルバイトしながらやつてい

るものもおります。皆優秀な人達ばかりです。

私は日本から最初の同僚留学生としてちん重されております。どうも外国人のようになつてゐるやうで変な感じがします。韓国語を話すと最初みなびっくりしたやうです。

外国に来ますと言ひに言えぬ孤独を感じますがでも世界的に有名な教授の講義が聞けるのが唯一の楽しみでしう。私は真前であつております。

美しいハイデルベルクの町で勉強できるのが感謝です。日本はある韓国教会の皆様によりしく

敬具

伝道主日

三月 一日

当日献金は 総会々計 金光千長老に 送金す
主日礼拝に 参加す

伝道局長 金 徳 成

